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자

- 에너지원단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90년 0.346에서 96년 0.407로 에너지 산업육성 절감해야...

한 국가의 에너지산업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의 하나로 에너지원단위를 사용한다.

에너지원단위는 재화 1천달러어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꼭 에너지산업의 척도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소비의 실패.

한 국가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는 적절하다.

에너지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이 국가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원단위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얼마일까.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에너지 원단위는 0.346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1996년 에너지원단위는 한국이 0.407 미국이 0.340이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원단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이다. 90년 0.148, 96년 0.156,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가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가별로 에너지원단위를 말하는 것은 각국이 언제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의 척도이자 그 나라의 에너지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산업의 수준, 에너지원단위를 말하기보다 우리는 왜 에너지원단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OECD국가 평균 에너지원단위는 90년 0.267, 96년 0.258로

낮아졌으며 세계 평균으로는 90년 0.412에서 96년 0.391로 낮아졌다.

세계 각국이 갈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 나가는데 우리나라만은 유독 에너지원단위가 높아져가고 있다. 에너지원단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과거 10여년간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왔다.

이는 곧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져가는 지표였던 것이다.

1973~4년 1차 석유파동이후 에너지절약운동은 범국민적으로 펼쳐온 우리로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은 떨어졌었다. 어떻게 우리는 에너지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맞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 저소비형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면서도 에너지소비가 많은 철강, 제지산업의 확대를 방치했던 것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아닐까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의 증가가 얼마인가를 알 수 없겠으나 문제는 에너지 정책이 전국각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국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천년대에는 에너지소비의 문제가 과거와는 판이한 순수한 안보, 경제적인 문제에서 지구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사실이다.

에너지 소비율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실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대해 에너지산업을 총체적으로 묶어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산업은 정부차원에서 공급안정에 최대 정책적 목표를 두었을 뿐 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은 대단히 소홀했었다.

에너지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대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미 설치된 에너지다소비산업을 폐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새로운 설치시에는 반드시 에너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장치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정부가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에너지원단위가 일본의 3배 정도에 가깝다는 사실은 에너지산업의 수준이 일본에 비해 그만큼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 된다. 다시말해 에너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에너지 전시회는 에너지산업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척도이며 에너지 전시회가 갖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자, 최근 정부가 고효율기기 보급정책을 펴면서 고효율기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효율기기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정부가 고효율기기 개발·보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에너지원단위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OECD국가의 평균 에너지 원단위는 0.258(96년기준)이다. 우리는 적어도 OECD국가의 평균 에너지원단위에는 도달해야 한다.